

SERIES OVERVIEW



Scriptures taken from the Holy Bible, New International Version®, NIV®. Copyright © 1973, 1978, 1984, 2011 by Biblica, Inc.™ Used by permission of Zondervan.

All rights reserved worldwide

개요

성경, 특히 시편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신비와 아름다움을 거듭해서, 그리고 강하게 선포합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다 여호와와 의 것이라”(시 24편),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시 19편),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시 104편).

하나님께서서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그분의 세상을 지혜롭게 다스리도록 맡기셨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와의 관계를 왜곡시키고 상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번 3주 시리즈에서는 하나님의 창조의 선함과 우리의 역할, 죄가 초래한 문제와 그 영향, 그리고 새 창조를 바라보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돌보는 일은 일부의 선택적 책임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부르심입니다.

존 스토틀 (John Stott)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성경은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여호와와 의 것’이라고 말씀하면서(시 24:1), 동시에 ‘하나님께서 땅을 사람들에게 주셨다’고도 말씀합니다(시 115:16). 이 두 선언은 서로 모순이 아니라, 서로를 보완하는 말씀입니다. 땅은 창조로 인해 하나님께 속해 있고, 위임을 통해 우리에게 맡겨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권리를 내려놓고 우리에게 완전히 넘겨주셨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대신하여 땅을 보존하고 발전시킬 책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의미입니다.”¹

우리는 피조세계를 숭배해서도, 함부로 이용해서도 안 됩니다. 다만 하나님께 의지하며 그분과 협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Outline

Week 1	하나님의 창조와 우리의 다스림G	창세기 1:1-31 (cf. 창 2:15-25; Ps 8)
Week 2	새 창조와 우리의 미래	계시록 21:1-5 (cf. 이사야 65:17-25)
Week 3	타락한 창조와 우리의 현재	Genesis 3:1-19 (cf. 로마서 8:18-25)

General Resources

- Read (book): “Is God Green” by Lionel Windsor. 

¹ See John Stott “Care for Creation” for A Rocha Canada.

- *Read (book):* “Creation Care” by Douglas Moo & Jonathan Moo. 
- *Read (book):* “Creation Care” by John Stott.
- *Read (book—suitable for reading age of Year 10 and up):* “A Christian’s Guide to Planet Earth: why it matters & how to care for it” by Betsy Painter. 
- *Read (book—suitable for reading age of 8-12 and up):* “All Of Creation: Understanding God’s Planet and How We Can Help” by Betsy Painter
- *Read (book—for children):* “God’s Very Colourful Creation” by Tim Thornborough and Jennifer Davison.
- *Read (book—for children):* “Creation (Big Theology for Little Hearts Series)” by Devon and Jessica Provencher.
- *Read (article):* “Care for Creation” by John Stott (for A Rocha Canada): https://arocha.ca/wp-content/uploads/2017/03/article_careforcreation-john-stott.pdf

For the series overview, weekly sermons, small group material, and weekly children’s curriculum, visit: www.stbarts.com.au/sermon-series/creation

St Bart’s Resources (including for families)

For the series overview, weekly sermons, small group material, and weekly children’s curriculum, visit: www.stbarts.com.au/sermon-series/creation

Companion Resources

In addition to this *series overview*, please also refer to the *series resource guide* for practical resources to grow as disciples in our care for creation.



Series Overview:

The *series overview* provides an outline of the sermon series. In addition to an overarching outline, each week highlights the Bible passage in focus, a brief reflection, some questions, and a short prayer.

To access these resources, visit: www.stbarts.com.au/sermon-series/creation

ADAM LOWE

St Bart's Toowoomba, September 2025



Summaries by Adam Lowe (AL)



Available to borrow from the St Bart's Church Library (stbarts.com.au/library)



Series Resources

This collection of *series resources* has been specially designed in conjunction with our VISION 2025 'Environmental Stewards' Working Group. It will help us to enjoy, learn about, and care for God's creation.

“이 시리즈 개요를 어떻게 활용할까요?”

매 주차마다 성경 말씀과 핵심 주제, 묵상을 위한 질문, 그리고 기도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 기도 (PRAY)

은혜로우신 하나님, 저희의 마음을 밝혀 주시고, 심령을 새롭게 하시며, 우리의 뜻을 주님의 생명을 주시는 말씀에 따라 빚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말씀읽기 (READ from the Bible)

이번 주에 함께 살펴볼 성경 말씀을 읽어 보세요. 그중 중요한 구절들은 따로 인용해 두었으니, 기억하고 외우며 묵상하셔도 좋습니다.

- 묵상 (REFLECT)

핵심 주제를 읽고 제시된 질문들을 통해 성경 본문을 묵상해 보십시오. 이는 설교를 준비하고, 이어지는 주간 소그룹 모임(세인트 바즈 웹사이트에서 제공)에서 나눌 질문들을 생각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 기도 (PRAY)

매일 사용하실 수 있도록 기도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기도문에만 의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Week 1

하나님의 창조와 우리의 역할

창세기 1:1-31 (cf. 창 2:15-25; 시편 8)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 1:28

읽기: 창세기 1:1-31 (AND 2:15-25)

목상.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무(無)에서 모든 것을 지으시고, 그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다 하시며,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구별해 두셨습니다. 피조 세계의 한 부분으로서 인간 역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아 하나님과 협력하여 ‘다스림’의 책임을 맡게 되었습니다(창 1:28).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이 ‘다스림’을 인간이 원하는 대로 땅을 지배하고 착취할 수 있는 권한으로 오해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다스림’은 훨씬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스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권세를 행사하되,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섬기며 책임 있게 행동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궁극적으로 책임을 지는 존재일 뿐 아니라, 그분께 의지하며 그분의 길에 따라 다스려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피조 세계를 숭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아름다움을 즐기며 창조주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기 위해 자연을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할 때,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본래의 자리로 회복시켜 주시고, 그분 아래에서 세상을 올바르게 다스리도록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며 그분의 뜻에 협력하는 다스림은 창조세계를 ‘일구고 지키는 것’(창 2:15)이지, 남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전혀 손대지 않는 ‘공원 관리인’의 방식도 아니고, 아무 고려 없이 자원을 끝까지 끌어다 쓰는 ‘개발업자’의 방식도 아닙니다. 오히려 주인을 대신하여 가꾸고, 돌보고, 키워내며, 모든 생명이 함께 번성할 수 있도록 일하는 ‘정원사’의 모습과 같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포괄적인 평화, 곧 ‘살림’은 바로 창조 전체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혹은 라이오넬 윈저(Lionel Windsor)의 표현대로라면:

성경은 세상이 선한 것임을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피조 세계에 대해 취해야 할 태도는 멸시가 아니라,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²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을 기쁨으로 감사하며, 그분께 찬양으로 나아가고,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맡기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자로서의 사명을 진지하게 감당함으로 그렇게 행합니다.

- 창조 세계 가운데 무엇이 당신을 가장 경외하게 합니까?
- 하나님은 자신의 창조 세계에 대해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세상을 대하는 태도에 어떤 영향을 주어야 합니까?
- 창조 세계의 아름다움은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뻐하도록 도와줍니까?
- 우리는 누구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세상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은 무엇입니까?
- ‘다스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또 무엇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 ‘정복하라’는 말씀과 혼돈에서 질서를 세우라는 우리의 사명은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 우리가 창조 세계를 일구고 돌보는 일이 우리의 ‘이웃’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습니까?
- 하나님의 창조의 선하심을 더 깊이 기뻐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무엇입니까?
- 하나님과 그분의 목적에 협력하며, 그분의 세상을 충실하게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로써 더 자라갈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무엇입니까?

기도 (PRAY)

전능하신 주님, 주님의 손으로 지으신 일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주님의 창조는 참으로 놀랍습니다! 우리를 주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주님의 세상을 맡아 돌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창조의 아름다움을 기뻐하게 하시고, 찬양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며, 주님께 의지하여 주님의 뜻을 섬기며 지혜롭게 다스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² See Lionel Windsor “Is God Green?”, p.8.

Week 2

새 창조와 우리의 미래

계시록 21:1-5 (cf. 이사야 65:17-25)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계시록 21:1-2

읽기 (READ): 계시록 21:1-5 (AND 이사야 65:17-25)

묵상 (REFLECT).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자로서의 사명을 저버렸을 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피조 세계를 구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은, 한편으로는 하나님 세상의 가치를 향한 분명한 ‘예!’라는 선언이며, 동시에 우리의 비극적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경고하는 표지입니다. 창조주께서 개입하지 않으셨다면, 인류와 세상은 모두 잃어버림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피조세계를 버리지 않으셨고, 우리의 죄로 인한 모든 결과를 홀로 감당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음과 부활을 통해 세상을 구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우리는 죄의 권세와 형벌에서 해방되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우리는 죽음과 썩어짐의 권세에서 자유한 전혀 새로운 시대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분을 믿는 모든 이가 경험할 부활을 가리킬 뿐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질 만물의 새로움을 예고합니다.

이사야 65장과 요한계시록 21장은 바로 그 미래에 대한 갈망과 실현의 모습을 함께 보여 줍니다. 이사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누리며,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고, 한 백성으로서 기뻐할 영광스러운 비전을 받습니다. 그곳에는 더 이상 고통도, 슬픔도, 죽음도 없습니다. 헛되이 수고하지도 않고, 서로와 세상과 불화하며 살지도 않을 것입니다. 새로운 창조는 현재의 세상과 연결되지만(예: 물질적 현실), 우리가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전혀 새로운 아름다움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인용한 말씀처럼,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신뢰할 때 확신할 수 있는 미래입니다. 언젠가 우리의 몸과 세상이 더 이상 죄의 저주와 영향 아래 있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그곳에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구속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세상을 심판하실 재림 사이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중요합니다. 그것은 결코 우리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가 아니며, 세상을 우리 힘으로 구원할 수 있다는 기대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자로서(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자, 새로운 피조물, 고후 5:17), 만물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에 응답하며(골 1장), 이웃을 사랑하고, 주님이 가져오실 미래를 소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존재와, 그분이 우리를 새롭게 하신 정체성과, 우리가 속한 미래에 맞게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혹은 라이오넬 윈저(Lionel Windsor)의 말처럼:

우리가 세상을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 그것은 예수님의 사명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 속에서 변화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죽음에서 건짐을 받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되며, 하나님 아래에서 다스리는 이 세상의 상속자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³

하나님의 세상에서 우리의 자리와 역할이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세상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고, 우리를 본래의 자리로 회복시키셨으며,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 안에서 살고, 또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현실입니다.

-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가치에 대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 줍니까?
- 하나님께서 세상을 새롭게 하실 것이라면, 왜 지금 우리가 세상을 돌보는 일이 여전히 중요합니까?
- 새 창조는 어떤 모습일까요? 그 미래를 소망하며 지금 하나님의 세상을 적극적으로 돌보는 데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무엇입니까?
- 이번 시리즈 자료집에서 창조 세계를 돌보는 실제적인 방법들을 살펴보셨습니까?

기도 (PRAY)

사랑의 아버지요, 만물의 구속자이신 주님,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구원의 길을 열어 주심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구주와 주로 따를 때, 우리 안에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며 다가올 미래를 소망하며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³ See Lionel Windsor "Is God Green?", p.46.

Week 3

타락한 피조물과 현재의 우리 창세기 3:1-19 (cf. 롬 8:18-25)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 있는 동안 흠을 먹을지니라” 창 3:14

읽기 (READ) 창세기 3:1-19 (AND 롬 8:18-25)

묵상 (REFLECT) 있는).

죄가 세상에 들어오면서(즉, 타락)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을 뿐 아니라, 서로 간의 관계와 피조 세계와의 관계까지도 손상되었습니다. 그 결과는 눈에 뵈히 드러나며, 우리 모두가 그 문제의 한 부분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사실(3:23)뿐 아니라, 창조 세계 전체가 죄의 결과로 인해 해산의 고통을 겪으며 신음하고 있음을 상기시킵니다(8:18-22). 시편 기자들이 말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바로 그 피조 세계가, 바울의 표현대로는 썩어짐의 종살이에서 해방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곧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정체성을 거부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즉, 피조 세계를 돌보고, 지키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하는 사명—을 저버린 결과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땅을 훼손시켰습니다. 하나님 다스림을 거부한 결과는 우리 자신뿐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세상에도 치명적인 파괴를 가져왔습니다. 땅은 죄의 ‘저주’(창 3장 창조)를 경험하게 되었고, 그 증거는 오늘날에도 탐욕, 이기심, 지혜롭지 못한 다스림 속에서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을 보내셔서 인류뿐 아니라 피조 세계 전체를 구속하시려 하셨습니다.

혹은 더글러스와 조너선 우(Douglas & Jonathan Woo)의 표현처럼:

“우리의 하나님은 자신이 지으신 것을 버리거나, 죄와 악에 패배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구속하시는 하나님이시며, 타락한 세상을 되찾아 부패의 종살이에서 해방시키시고 마침내 영광의 상태로 이끄시기를 뜻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⁴

우리가 하나님과 그분의 다스림, 그리고 맡겨진 사명을 저버린 실패를 고려할 때, 복음에 대한 올바른 응답은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우리의 죄와 그로 인해

⁴ See Moo and Moo “Creation Care”, p.147.

초래된 모든 피해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둘째, “예수님이 주이시다”라는 복음의 소식에 응답하여,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자로서 새로운 삶을 진실하게 살아가려는 것입니다. 셋째, 우리를 구속하시고 장차 모든 창조 세계를 새롭게 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그분께 응답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버리지 않으시고, 근본적으로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우리는 옛 사람을 벗어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며, 장차 우리와 모든 피조 세계가 될 모습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 죄란 무엇입니까? 그리고 어떻게 모든 사람이 그 문제의 일부가 됩니까?
-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 서로 간의 관계, 그리고 세상과의 관계를 어떻게 깨뜨립니까? 또한 죄는 어떻게 여전히 피조 세계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맡은 청지기로서 당신이 실패했던 부분이 있습니까? 잠시 시간을 내어 회개하십시오.
-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책임과 우리의 죄의 현실을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떻게 응답해야 하겠습니까?

기도 (PRAY)

은혜로우신 아버지, 저희가 주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주님의 형상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며, 주께서 맡기신 책임을 충실히 감당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구속하시고 만물을 새롭게 하실 주님께 응답하며 살아가도록 저희를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